연예뉴스 스테이션

걸그룹 전 멤버·레이싱 모델 등 고액 성매매 적발
걸그룹 전 멤버와 레이싱 모델, 연예인 지망생이 서울 강남 일대 고급호텔에서 고액 성매매를 벌인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20일 성매매알선 등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소 업주 박 모(31) 씨를 구속하고, 다른 업주 10명과 성매매 여성 11명, 성매수 남성 1명 등 27명 불구속입건했다. 업주들은 걸그룹 전 멤버 등을 모집해 온라인에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과 성매매를 주선하고 60만원에서 150만원을 챙긴 혐의다.

무한도전·서경덕교수 日 다카시마 공양탑 재정비
MBC '무한도전'과 한국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손을 맞잡고 또 한 번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 9월 '무한도전'을 통해 소개돼 안타까움을 안겼던 일본의 다카시마 공양탑 주변이 말끔히 정비됐다. 서 교수는 20일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작업 과정을 밝혔다. 방송 직후 서 교수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약 1800만원을 모았다. 다카시마 공양탑은 일제강점기 일본 하시마섬 등에 강제징용돼 현지에서 사망한 조선인 유골을 인근 지역인 다카시마섬에 매장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세워졌다. '무한도전'을 통해 폐허처럼 방치된 모습이 공개된 이후 사회적 관심을 얻었고 시민 모금으로 공양탑 재정비가 이뤄졌다.

서태지·김종서, 가족과 함께 신해철 영정 헌화
가수 서태지와 김종서가 20일 오후 가족과 함께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을 찾아 고 신해철 영정에 헌화했다. 서태지와 고인은 육촌지간. 27일은 신해철의 1주기이고 이에 앞서 25일 고인의 유해가 납골당에서 야외 안치단으로 옮겨지는 봉안식이 진행된다. 서태지는 이날 혼잡을 우려해 일찌감치 추모관을 찾았다. 신해철은 작년 10월17일 서울 A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후 위중한 상태에 놓였다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당시 집도의의 의료과실을 따지는 첫 재판이 2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동방신기·빅뱅·대장금 등 대표 한류 콘텐츠 선정
동방신기와 빅뱅, '대장금' 등이 대표 한류 콘텐츠로 꼽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전문가 집단의 심층조사와 일반인 대상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합산해 장르별 대표 한류 콘텐츠를 20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음악 분야에서는 동방신기, 빅뱅, 소녀시대, 보아, 싸이가 상위 5위에 올랐다. 방송 분야에선 '대장금' '겨울연가' '별에서 온 그대' '가을동화' 등이 선정됐다. '런닝맨'은 예능프로그램으로선 유일했다. 공연 분야에서는 '난타' '명성황후' '점프' '광화문연가'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가 주목 받았다.

가수 거미, 12월27일 '필 더 보이스' 연말 콘서트

가수 거미(사진)가 12월27일 오후 6시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필 더 보이스'(Feel the Voice)란 이름으로 연말 콘서트를 개최한다. 지난해 '폴 인 어쿠스틱'과 '폴 인 폴'을 비롯해 5월 '폴 인 메모리'까지 소극장 공연을 통해 관객과 가까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온 거미는 연말 좀 더 큰 무대에서 다채로운 구성과 새로운 시도로 특별한 공연을 선보인다. 예매는 26일 오후 2시, 인터파크를 통해 시작된다.

'베테랑', 시체스영화제 '포커스 꼰 최우수작품상'
영화 '베테랑'이 9일부터 18일까지 스페인 시스에서 열린 제48회 시체스 국제판타스틱영화제 공식 경쟁부문에서 '포커스아시아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고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가 20일 밝혔다. 시체스 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세계 3대 판타스틱 영화제 중 하나로 액션, 호러, 판타지 등 장르영화를 소개하는 영화제다. '베테랑'은 8월 개봉해 1340만 관객을 동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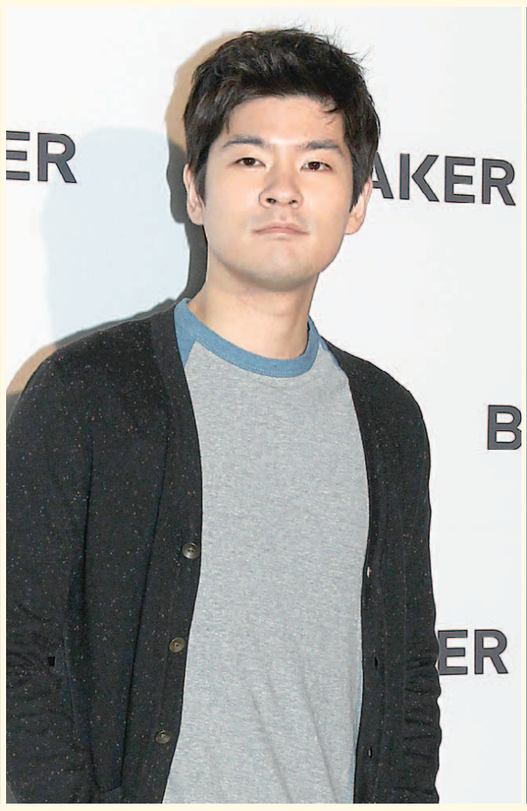
음악 랭킹

10월 12일~10월 18일, 자료:멜론

1위 음악 정보보기

순위	곡명	아티스트
1	No Make Up	Zion. T
2	I (Ft. 버벌진트)	태연
3	또 다시 사랑	임창정
4	바람이나 좀 쐐 (Ft. MIWOO)	개리
5	어깨	소유, 권정열
6	취향저격	iKON
7	보통연애 (Ft. 박보람)	박경
8	U R	태연
9	겁 (Ft. 태양)	송민호
10	커피	유재환, 김예림


최자


장기하


이동건

아이돌과 로맨스…3040 삼촌스타들의 반란

일과 사랑 다 잡은 '아저씨 스타들'

최자·이동건·장기하 등 아이돌과 연애중
42살 임창정·37살 개리는 음원차트 올킬
조카뻘 아이돌 "배울 점 많아 좋아" 호감

'삼촌'과 '아저씨'들의 반란일까.

30~40대 남성스타들이 일과 사랑을 다 잡은 사례가 이어져 눈길을 끈다. 아이돌 스타와 같은 강력한 팬덤도 없고, 폭발력 있는 인기를 누리는 것도 아니지만 뭇 남성들이 로망으로 여기는 걸그룹 스타를 여자친구로 만들고, 아이돌 강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음원차트 정상을 차지하기도 한다.

이른바 '국민여동생'의 사랑을 쟁취한 이들은 최자, 이동건, 장기하, 알렉스 등이다. 올해 만 35살인 최자와 이동건은 각각 에프엑스 출신의 설리(21)와 티아라 지연(22)과 교제 중이다. 장기하(33)는 아이유(22)와, 알렉스(36)는 레인보우 조현영(24)과 사귄다. 세 간의 남성들에겐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다.

이들 '삼촌'들과 '아저씨'들은 음원차트에서도 맹활약하고 있다.

불혹의 가수 임창정(42)은 9월22일 발표한 첫 미니앨범 타이틀곡 '또 다시 사랑'으로 9월30일부터 음악사이트 실시간 차트를 '올킬'하기 시작, 10월9일 KBS 2TV '뮤직뱅크'에선 13년 만에 음악프로그램 1위의 감격을 맛봤다. 음원 발표 1개월이 지나는 상황에서 20일 현재 멜론 실시간 차트 4위를 지키며 여전히 고공비행하고 있다. 만 37살의 개리 역시 9월21일 발표한 솔로앨범 '2002' 타이틀곡 '바람이나 쐐'를 한 달째 5위권에 올려놓으며 롱런하고 있다.

아이돌에게선 느낄 수 없는 관록, 세월의 향취로 이뤄낸 임창정과 개리의 활약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0~20대 아이돌 그룹들이 점령한 가요차트에서 이들의 성적표는 적잖은 40대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 '조카뻘' 걸그룹 스타들도 이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며 호감을 드러낸다. 아이유는 장기하와 교제 사실을 인정하며 이 같이 말한 바 있다. 30~40대들이 긴 세월 연예계 생활에서 이뤄내 성과와 이를 얻기까지 과정을 바라보며 음악인으로서 또 연예계 종사자로서 롤 모델로 보게 되는 것이다. 존경심과 팬심이 결합된 셈이다.

강태규 대중음악평론가는 20일 "30~40대는 연예계에서 '허리'가 되는 세대다. 이들의 활약이 신구세대의 건강한 조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임신 7개월' 전지현 이달말까지만 활동

톱스타 전지현이 이달 말까지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출산 준비에 들어간다.

20일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전지현은 29일 오후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 참석한다. 전지현 측은 현재 임신 7개월이라 참석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다 최근 참석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화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문화부장관표창, 한국콘텐츠진흥원장표창 등 5개 부문 가운데 어떤 상을 받을지 관심을 모은다.

전지현은 이례적으로 임신 중에도 광고를 재계약하는 등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한 만큼 이달까지 각종 프로모션 행사에 모두 참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최근 한 캠페인 홍보대사 위촉식에도 참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소속사 측은 "전지현은 책임감이 강하다. 개인적인 일로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면서 "조만간 공식적인 행사를 모두 마무리한다. 내년 초 출산까지 안정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전지현

'불륜남 변신' 지진희, 섹시한 꽃중년으로 떴다

드라마 '애인 있어요'서 반듯한 이미지 탈피

욕을 먹는 만큼 인기도 얻는다.

연기자 지진희가 '섹시한 꽃중년'으로 드라마 안팎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고수해온 따뜻하고 반듯한 이미지와 달리 여성 시청자의 비난과 원망의 대상인 '불륜남' 캐릭터라는 점에서 더욱 시선을 끈다.

지진희는 현재 SBS 주말드라마 '애인 있어요'에서 직장 후배와 바람을 피우는 '나쁜 남자'로 출연 중이다. 2013년 드라마 '따뜻한 말 한 마디' 이후 또 다시 선보이는 '불륜남' 캐릭터. 드라마 시청자 게시판에는 지진희를 성토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한 순간 무너지는 것 같다"고 호소할 정도다.

하지만 패션업계와 광고계에서는 오히려 그를 주목하고 있다. 큰 체격과 중후한 매력이 어우러져 남성 정장과 의약품, 음료수 등 각종 광고모델 제의가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일부 브랜드와는 계약을 논의 중이다. 또 '섹시한 남자'라는 타이틀로 각종 화보와 패션잡지에서도 그를 조명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극중 지진희가 아내 김현주에게 다시 돌아가는 설정이 서서히 전개되고 이야기 반전이 예고되면서 상황은 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진희 측 관계자는 20일 "중년 여성 시청자에게는 '공공의 적'으로 떠올랐다. 반듯하게 생긴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나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고민도 많았다"면서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시청자의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배우 지진희가 '불륜남' 캐릭터로 여성 시청자의 비난과 원망을 사고 있다. 하지만 '욕'을 먹는 만큼 인기는 오른다. 사진제공 | SBS

EXID, 대세 굳히기

내달 중순 복고풍 댄스곡으로 컴백

걸그룹 EXID가 11월 새 음반을 내고 '대세' 굳히기에 나선다.

EXID는 지난 봄 '아 예' 활동을 마치며 계획했던 '9월 컴백'에서 두 달을 미룬 끝에 최근 신곡 작업을 마무리하고 11월 중순 새로운 앨범을 내놓는다.

새 음반 타이틀곡은 이들의 데뷔 때부터 줄곧 함께 해온 유명 프로듀서 신사동호랭이와 멤버 LE가 함께 만들었다. 힙합의 요소가 다분하면서도 복고풍 멜로디로 친숙함을 주는 댄스곡으로 알려졌다. 대중에 잘 알려진 히트곡 '위아래', '아 예'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대중의 감성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3연속 히트를 노리는 EXID는 이번 음반을 통해 '핫한 걸그룹'에서 '대세 걸그룹'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겠다는 각오다. 작년 연말 '위아래'의 역주행을 시작으로 4월 '아 예'에 이르면서 방송가와 행사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걸그룹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다른 걸그룹을 압도할 만큼 중량감에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는 평가를 받은 EXID는 이번 음반을 통해 '대세' 이미지를 구축함과 동시에 롱런의 발판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아울러 한 해의 끝에 맹활약을 펼치면 연말시상식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번 음반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11월 새 음반을 발표하고 3연속 히트를 노리는 EXID. 뉴시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